

平昌郡議會本會議會議錄

第37回平昌郡議會

開會式

平昌郡議會事務課

1995年 11月 25日(土) 11時00分 開式

第37回平昌郡議會(定期會)開會式順

1. 開 式
1. 國旗에對한敬禮
1. 愛國歌齊唱
1. 殉國先烈및戰歿護國勇士에對한默念
1. 開會辭
1. 閉 式

(司會: 議事係長 咸京鎬)

(11時00分 開式)

○ 議事係長 咸京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7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개최식을 거행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낙운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욱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도 의정을 마감하게 되는 제37회 평창군의회 정기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또다시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먼저 정기회 개최에 즈음하여 금년도 한해동안 의회 운영에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관심과 용기를 북돋우어 주신 5만여 군민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95정기회는 29일의 일정으로 '96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많은 중요안건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만치 지난 1년간의 군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함과 동시에 내년도 시책을 결정하는 실로 중요한 회기인 것입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번 정기회는 의원 여러분들의 그간 의정활동을 총정리하고 향후 의정활동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한 이래 처음 실시하는 정기회인만큼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한데모아 주실것으로 봅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국제적으로는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민족간 마찰과 종교적 갈등으로 크고 작은 분쟁이 곳곳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세계무역기구 발족으로 상징되는 국제경제질서의 재편 소용들이 속에서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상황 역시 문민정부 출범이후 계속되는 변화의 소용들이 속에 휩싸여 정치·경제·사회등 모든 부문에서 낡은 구습을 혁파하려는 개혁의 의지가 표출

되고 있습니다.

최근 노태우 전직대통령의 부정축재 사건과 관련하여 노출된 정치권의 부패상과 정경유착의 극심한 폐해는 국민적 분노를 불러 일으켜 전직대통령의 구속이라는 역사의 오점을 남겨 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것들은 창조와 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위한 도덕기반과 가치관의 정립으로 부정부패 구도를 청렴과 투명한 민주체제로 바꾸어 나가는 전기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적으로는 민선기초자치단체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내재되어 있던 민의가 그 어느해 보다도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의회는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 사리를 분명하게 판단하여 올바른 민의는 의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의견은 이해와 설득으로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민의를 실제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측면에서 군정시책을 있

는 그대로 주민에게 보여주는 맑고, 투명한 열린행정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번 정기회는 29일이라는 긴 회기가 말해 주듯이 많은 의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새해의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군정살림살이를 알뜰하게 보살피고 민의를 군정에 올바르게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모든 시책이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배분되도록 건설적인 정책대안이 많이 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것을 각별히 당부 드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한달여동안 폭주되는 연말 군정의 마무리와 대의회 업무가 중복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설혹 이로 인한 군정의 기본이라 할수 있는

제반 민원업무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실것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가 민선기초자치단체 출범이후 지방자치의 기반이 확고히 정착 되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어 이번 회기에 계획된 '96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모든 안건들이 의회와 집행부간 이해와 타협으로 원만히 처리되어, 우리군 의정사에 찬연한 획이 그어질 수 있는 뜻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군민 모두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37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개회사를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事係長 咸京鎬 : 이상으로 제37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時10分 閉式)